

# 주부신행담

## 스님과의 인연 ①

**유** 달리 허전했던 불기 2543년도 이제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모든 들판의 새싹들과 산의 나무들이 계절을 잊지도 않고 내가 먼저 네가 먼저 앞 다투어 싹이 돌아나고 생동하는 봄은 기다려지지만 그만큼 한해를 정리하며 아쉬움이 남는다.

작년 가을이 저물어갈 무렵인 11월1일은 해인사 길상암 명진 큰스님이 사바세계를 뒤로 하고 열반에 드신 날이다.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기도만을 열심히 하시던 명진 큰스님. 스님은 붉은 낙엽과 함께 그 육체를 활활 벗어버리시고 무여 열반의 길로 떠나셨다. 비록 육신이 곁에 계시지 않을 뿐 스님이 전해주시는 가르침과 큰 자비심은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알지 못할 허전함에 이번 기회를 통해 스님에 대한 추억들을 떠올리려고 한다.

시아머니는 젊이 멀고 가까움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절에 다니시는 분이였다. 그러나 자연히 우리집에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염송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스님들도 자주 집에 오셨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나에게 조금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리 먼 절이라도 마다 않고 다니시던 어머니가 절에 가시면 며칠씩 결릴 때도 있었다. 혼자 외로우신 시아버지 때문에 오히려 어머니가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물론 시아버지도 <친수경>에 <금강경>까지도 암송하실 정도로 독실한 불교신자이셨지만.

아무튼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나는 전혀 변화가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지금은 졸업하고 고시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길거리에서 108 염주를 주워왔다. 어느 분이 주인인지도 알 수 없고 그렇다고 내뽐게 할 수도 없어서 가방 속에 보관하게 되었는데 그 염주는 지금까지도 항상 가지고 다닌다. 어쩌면 부처님과의 인연은 그때부터 시작된 듯 하다.

그러다가 90년 정월에 시아버지께서 저녁식사를 드시고 난 후 갑자기 운명하셨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열심히 부처님 경전을 외우신 공덕이던 어머니가 교통사고 없이 돌아가셨다. 그때 해인사 길상암에는 음력 정월 7일부터 9일까지 정월기도를 올렸다. 마침 9일기도를 회향하셨던 명진스님은 피곤함도 잊으시고 버스도 열차도 밤에 우리집이 있는 경기도 구리시 까지 오셨다. 나는 그동안 어머니께 스님의 이야기만 들었지 직접 볼 기회는 없었다. 때문에 들어서시는 스님을 보는 순간 범상치 않은 눈매와, 털모자에 털신, 장삼을 입으신 모습에서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겸손함과 소탈함을

느꼈다. 마치 어디서 열심히 일을 하고 급하게 달려온 모습 같았다.

그후부터 남편과 나는 해인사 길상암을 한달이 멀다 하고 한걸음에 달려가는 마음으로 자주 갔다. 길상암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 친견을 하며 절을 드리면 그전까지는 새벽예불 참여도 힘들게 느껴지던 나였는데 갑자기 가슴이 딱 차오르면서 소리없이 눈물이 흘러내려서 어떻게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신심이 싹을 무렵 명진스님은 모든 신도들에게 항상 다정하게 대하시며 앉으나 서나 큰 가르침을 주시었다. 법당에서 즐겁게 부처님 전에 예불을 드리는 스님을 뵈는 분들은 "저렇듯 열심히 하시는 스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인연



그림 · 이준석

### 산소를 이장하다 말고 내려온후 집안에 교통사고가 잇달아 스님은 직접 기도를 올려주며...

이 늦었구나"라고 놀라며 정전을 새롭게 하곤 했다고 한다.

어느 절이든지 부처님은 영험하시겠지만 부처님법을 전파하시는 스님이 열심히 수행하시며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여야만 그 도량이 영험할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절을 찾은 신도들도 스님의 영향을 받아 바르게 생활을 하며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다 93년에 우리 집안은 증조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산소 이장을 하게 되었다. 음력 7월에 발초를 하면서 이장을 하고 보니 주위에 소나무와 여러 나무들이 있어 포크레인도 동원하게 됐다. 포크레인이 산소 주위를 마구 파서 시간이 늦어져서 그대로 철수를 하고 내년 봄 한식 때 나머지 나무를 하자고 회의를 한 다음 산을 내려왔다. 그런데 우연이 겹치기 시작했다. 산소를 마무리 하지 않고 내려온 후로 집

안에 사고가 연거푸 일어난 것이다.

**맨** 처음 대전 시아주버님이 토요일 교통사고로 다리와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그후 다음주 토요일 똑같은 시간에 내 바로 밑 동생에게 대형사고가 일어나게 아닌가. 너무도 끔찍한 사고였다. 그 다음 토요일 또 똑같은 시간에 시동생이 사고를 당했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사람은 다치지 않았으나 차가 크게 손상되었다.

성철스님 다비식날 우리는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마비상태라는 뉴스를 듣고 오후 늦게 길상암에 갔는데 길상암에서 바라보는 백련암은 불꽃이 장관이었다. 백련암 성철스님 계신 암자에서 방광을 한 장면을 우리는 보았으니 참으로 영광이었다. 백련암에서 시작한 해같은 방광은 길상암 천진보탑에 부처님 진신사리 모셔진 곳까지 하늘에서 불꽃놀이처럼 퍼졌다 사라졌다 계속 반복하였고 명진스님은 "우리 스님 방광하신다"면서 천진스런 아기처럼 좋아하셨다. 그때는 비가 와서 칠후같이 어두운 밤이었고 방광은 그 다음날 새벽 3시 30분 예불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지 못했으니 지금도 아쉬우나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격이었던지.

그후 지난 94년 명진스님은 몇분의 신도분들과 미얀마로 성지순례를 가셨다. 미얀마는 그때 당시 개방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전혀 연구도 모르고 처음 가진 스님에게 공황에 마중나온 미얀마 종교성 외무부 장관이 스님을 알아보며 "동방한국에서 오신 스님이나"고 하였다. 알고보니 미얀마 우소비타 종정스님의 꿈에 '동방에서 큰스님이 오시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 장삼 방식 그리고 스님이 신오실 버선을 준비해서 주라'하시는 선물을 계속 내리셨다는 것이다. 명진스님은 너무도 뜻밖의 감격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스님께서는 신도 한분 한분마다 진신사리를 친견시켰는데 삼배를 드리고 난 다음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사리는 너무나도 환희심이 일었다고 말씀하셨다. 부처님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 정진하신 스님이심을 알고 있었지만 말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 외국에까지 전파가 되었음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계속>

김항숙(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 불자 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케이블) 봉축행사 사찰연등 법당기도등용 불제 T형 전선(불자 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 케이블)

- 사용 용도**  
사찰연등용 · 옥외행사용
- 규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주문  
· 모델 : DW-101, DW-100F (고리용)
- 안정성 작업성 내구성 확보**  
· KS전선사용  
· 감전, 화재사고를 예방  
· 설치 ·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면 현수 재사용이 가능

- 전등배선**  
· 일일이 피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 이런 시소한 배선에서도 단선, 누전, 합선, 단락, 과열 등에 의해 감전사고나 화재 사고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 전기는 소리도, 냄새도, 보이지도 않고, 예고도 없습니다.  
· 단지 충분한 지식의 이해와 점검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찰 전기화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8 봉축 이전에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대원기업**  
■ 인터넷 : <http://www.bulje.co.kr>

\* 사찰용, 연등용 전구 3W~5W도 납품합니다. (고추전구, 인지전구)



개국10주년  
[www.bbsfm.co.kr](http://www.bbsfm.co.kr)

# 4월 3일부터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 젊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의 생각과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 1시간을 늘렸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현재 21시간 방송에서 22시간으로 1시간 연장해 하루의 시작과 갈무리가 불교방송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일 불교방송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면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 활력이 넘칩니다.**  
라디오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생방송 비율을 75%로 늘렸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는 살아 숨쉬는 정보가 제공되며 생동감이 넘쳐날 것입니다.  
불교방송을 들으면 활력이 넘칩니다.



불교방송과 함께 하면 여러분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개국 10주년을 맞는 저희 불교방송이 4월 3일부터 프로그램을 대폭 바꿨습니다.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달라진 모습으로 청취자 여러분들 곁으로 좀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 격을 높였습니다.**  
품격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신설하고 기존 프로그램도 포맷 변경으로 참신성을 추구했습니다.  
불교방송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목탁소리, 종경소리가 울리는 방송입니다.  
불교방송을 청취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맑고 향기롭게 될 것입니다.
- 모든 사람과 함께합니다.**  
청소년, 주부, 노인,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청취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청취자들의 참여폭을 넓혔습니다.  
이웃과의 대화가 보다 쉬워질 것입니다.

**BBS 불교방송**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번지 다보빌딩  
대표 (02) 705-5114 / FAX (02) 705-5229